

누구에게나 ‘있다’ 35 억년의 생명이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라며, ‘없는 것’ 을 찾기 시작하면 ‘있는 것’ 까지 보이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은 물질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욕망에는 끝이 없어, 없는 것을 찾고 또 원하는 바람에 물건만 넘치고 소중한 것이 보이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없는 것 찾기를 그만두고, 있는 것들을 세봅시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35 억년이나 살아오고, 지금 내가 말아서 살아 있다는 돌도 없는 ‘생명’ 이.

즐거운 삶의 천리교

누구에게나 ‘있다’ 35 억년의 생명이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라며, ‘없는 것’ 을 찾기 시작하면 ‘있는 것’ 까지 보이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은 물질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욕망에는 끝이 없어, 없는 것을 찾고 또 원하는 바람에 물건만 넘치고 소중한 것이 보이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없는 것 찾기를 그만두고, 있는 것들을 세봅시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35 억년이나 살아오고, 지금 내가 말아서 살아 있다는 돌도 없는 ‘생명’ 이.

즐거운 삶의 천리교

돌 위에 씨앗을 둔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린다. 새가 와서 쪼아 먹
어 버린다. 싹트지 않는다.

(계시록 · 지도말씀 = 1890.9.30)



우리는 돌 위에 씨앗을 뿌리
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
도 모릅니다. 비록 땅속에 심
었다고 해도, 아직 싹이 안 틀
까, 아직 멀었을까 싶다가 파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경솔한 행동이지만, 성진실이 있다면 어
떨까요? 위의 말에 이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뿌린 씨
앗은 묻혀 있다. 괘이로 파헤쳐도, 거기서 싹트지 않
더라도 다른 데서 싹이 튼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
다. 신앙하는 세계의 위대함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돌 위에 씨앗을 둔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린다. 새가 와서 쪼아 먹
어 버린다. 싹트지 않는다.

(계시록 · 지도말씀 = 1890.9.30)



우리는 돌 위에 씨앗을 뿌리
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
도 모릅니다. 비록 땅속에 심
었다고 해도, 아직 싹이 안 틀
까, 아직 멀었을까 싶다가 파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경솔한 행동이지만, 성진실이 있다면 어
떨까요? 위의 말에 이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뿌린 씨
앗은 묻혀 있다. 괘이로 파헤쳐도, 거기서 싹트지 않
더라도 다른 데서 싹이 튼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
다. 신앙하는 세계의 위대함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